

개혁신앙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 앞면에서 계속 >

그래서 그 후 부부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자신들의 믿음에 반(反)하는 것이었기에 동성 결혼식을 자신들의 농장에서 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동성 커플에게 그들의 결혼 피로연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고 연락했지만 이들 동성 커플은 이를 거절하고 관계기관에 인권차별이라고 고소한 것이다.

결국 뉴욕 주 인권분과(DHR)는 레즈비언 커플의 동성결혼식 장소대여 거절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기포드 부부에게 주(州) 정부에 \$10,000.00의 벌금을 내고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3,000.00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기포드 부부를 변호했던 짐 트레이너 변호사는 “판사나 주 인권분과 위원들이 기포드 부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거스르는 결혼식에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헌법상(제1항)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주의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살고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 소유의 자기 뒷마당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살 수 있는 이들 부부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았다.”고 말하고 “법원은 부당하고 비헌법적인 정부의 강요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면서 항소 준비 중임을 밝혔다.(* 출처 / 미주 기독교일보 2016.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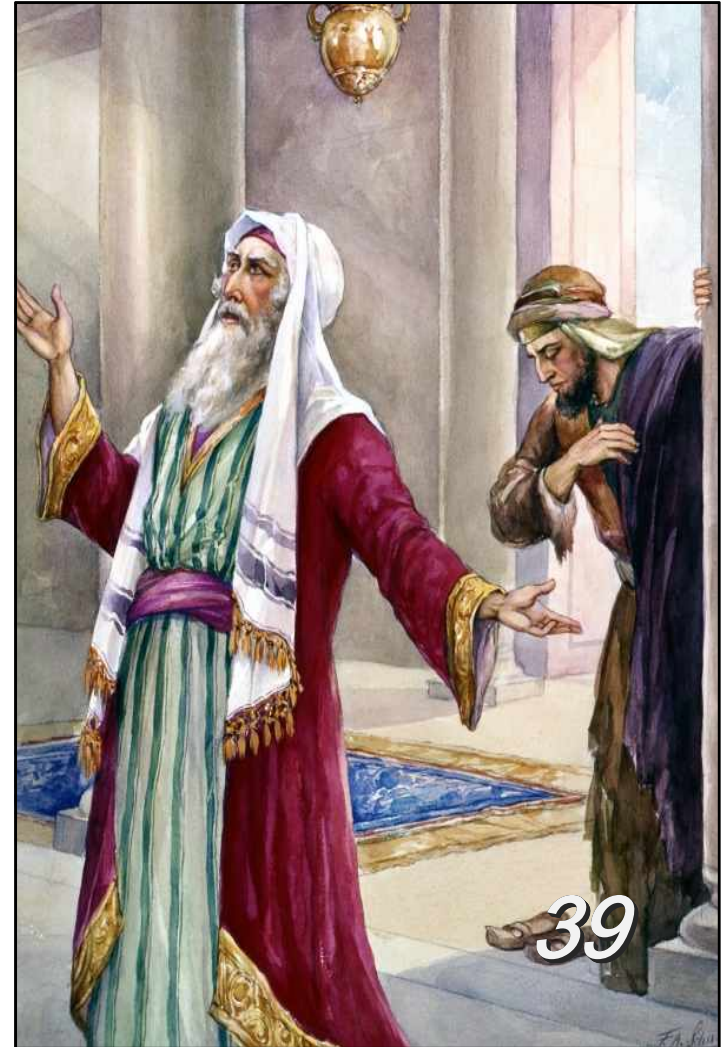
< 문서선교현금 2016년 1월 >

김항록(열바인한인교회) 윤해규(새벽이슬교회) 박병은(덴버돌로스장로교회) 조남정 백형순 송희영 최시진 조 룯 박종승 이종인 민경엽 정지호 송신호

www.thetruthlighthouse.org



개혁신앙 < 39호 >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발행처 월간 개혁신앙 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9-14)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 18:9-14)

표지설명 /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개인농장은 공공장소다? 벌금폭탄 맞은 농장주인 부부



농장주인 Robert Gifford와 Cynthia Gifford 부부

개인 소유의 농장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부한 뉴욕 주의 한 기독교인 농장주인 부부가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13,000.00 벌금형을 받았다. 뉴욕 대법원 항소 3부는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 소유의 농장에서 동성결혼식을 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로버트(Robert Gifford)와 신디아(Cynthia Gifford)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들 부부 소유인 농장이(Liberty Ridge Farm)이 공공장소(公共場所)이기 때문에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시설들이 공공(公共)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퍼드 부부의 종교 자유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나, 뉴욕 주 인권부의 결정이 기퍼드 부부에게 동성결혼에 참여할 것을 강제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성(異性)커플이 농장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성(同性)커플도 농장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논리라면 동성애자의 교회당 건물 사용거부도 위법이다.)

문제의 시작은 2012년에 부부가 방심한 한 짧은 전화 통화에서 시작됐다. 2013년 여름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던 뉴욕 주에 사는 제니(여, Jennie McCarthy)와 멜리사 (여, Melissa Erwin)라는 레즈비언 커플이 통화를 녹음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당시 부부는 이들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 뒷면에 계속 >